



4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농산물 판매도 드라이브 스루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음 3월 10일) 제25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코로나19 청정 전북 지켜가자”

송 지사, 전주역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점검반 꾸려 야간 유흥밀집지역 방역수칙준수 호소

전북도가 코로나19 철통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현장에 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3일간 해외 입국자와 다른 지역 출신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청정 전부를 지켜가자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많은 전주역을 찾아 대합실과 개찰구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전단과 방역품을 건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캠페인을 펼치는 등 외부 방문객을 비롯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3일 동안 4명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6명은 해외 입국자, 6명은 대구·경북 지역 유입자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감염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외부 유입에 따른 지역전파를 우려하고 방문객이 많

은 역과 터미널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젊은 층이 야간에 밀집하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9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운영 중단 권고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알려 나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해외 입국자 및 다른 지역 출신 유입자의 확산 관정이 높고 있어 방역망을 더 촘촘히 꾸려나가겠다”며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모두가 지켜야 할 준칙이 된 만큼 도민뿐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일 전주역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종이비누를 비롯한 개인 방역물품을 나누어주고 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선관위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운동 가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

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당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지역 고용안정 특별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만3000여명의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북도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 실직자를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3개 사업에는 국비 70억원을 비롯해 총 140여원이 투입돼 도내 취약계층 1만3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정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